

우리 협회의 곤충 조사연구는 변혁의 기회를 맞았다.

김진일

명예회장,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곤충학회 명예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들어가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가 창설된 이래 이 기구가 한국의 곤충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그야말로 지대하다. 해마다 전국의 곤충상을 조사함과 동시에 특수 환경의 군집 분석이나 특정 곤충의 생활사 등 다양한 연구를 지원, 수행케 함으로써 우리나라 곤충학의 기반을 마련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중 1971년부터 1996년까지의 상세한 목록을 본인이 「자연보존」지 100호에 정리하였고(김, 1997), 이후 2002년도까지 수행된 내용은 「自然保存 40年史」가 수합하였다(협회, 2003). 이후 현재까지의 상세한 목록은 협회 창립 50주년을 기해 종합되었다(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2013). 필자는 곤충, 특히 육상곤충의 조사나 연구에 적극 참여해왔다. 협회가 지정한 지역의 相조사(종합조사), 연구과제였던 특정지역 곤충상, 특수 환경, 특수 서식처의 곤충상, 도시 곤충상의 시대적 변화 등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의 요약은 「자연보존」 149호에 밝혔다(김, 2010). 여기서 신종, 미기록종 등의 신 분류군의 발견에 관한 내용이 설

명되었고, 덧붙여서 내가 조사 도중 겪었던 사건, 사고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이런 글들로 인해 이번에 협회가 분야별로 조명하고자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항목 중 현재 이전의 내용은 자칫 지난날 나의 글들의 반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될수록 간략하게 결론적인 내용만 인용해야 하겠다. 대신 본인 이외의 학자들의 조사나 연구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기로 한다. 한편, 협회가 어느 지역 조사단을 구성할 때의 총괄적인 사항을 누군가가 별도로 작성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은 후배 곤충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배경 설명으로 곁들이고자 한다.

한편, 동일한 방법의 조사나 연구가 반세기 이상 지속될 수는 없다. 더욱이 21세기, 즉 생명과학시대를 맞은 우리는 이제 과거의 고루한 방법에서 탈피해야 한다. 물론 탈피 후 새로운 방향의 설정, 새로운 수단의 모색에는 엄청난 난관들이 따를 것이 예상된다. 이 점에 대하여나 개인으로서는 크게 기여할, 아니 희망적인 방안 제시의 글조차도 작성할 자신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약간

1)Entomological Surveying Methods of our Association Meted a Reformatinal Period

2)KIM, Jin Ill, Life Member /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eur Emeritus/ Sungshin University); E-mail: jikim@sungshin.ac.kr, jikim@cc.sungshin.ac.kr

의 의견을 보태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곤충학사에 공헌적이고 화려했던 과거 업적

우리 협회가 탄생한 이후 생물상의 조사 활동을 가능케 했던 계기는 미국 Smithsonian Institute의 지원에 의한 DMZ 인접지역 조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원이 본래의 계획보다 일찍 중단되어 이 조사는 곧 문을 닫아야만 했으나 국내의 자금으로 몇 번 더 조사가 이루어져 보고서들이 출간되기도 했다. 한편, 다행스럽게도 故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협회의 조사사업이 미래의 국가 자연환경 유지에 매우 중대한 일임을 인정하여 사업 기금으로 2억 원(1억씩 2회)을 지원해 주시으로써 현재까지 사업이 이어져 올 수 있었다. DMZ의 초기 조사단은 1개 팀의 지질조사반 외에는 전적으로 생물학자들로 구성되었다. 환경, 생태, 분류군별 생물상 조사 등의 13개 반으로 나뉘었고, 각 반은 교수 1인의 책임자와 1~2명의 연구조원(조교 또는 대학원생)이 배정된 총 34명으로 구성되었다. 곤충반의 책임자는 고려대학교 김창환 교수, 조원은 고려대학교의 본인과 오진국 씨였다. 1972년도 초가을에 신유항(경희대 명예교수), 고 노용태(전 건국대 교수)가 합세하여 총 1,000여 종 4,800여 개체가 채집되었고, 동정된 745종을 목록으로 보고하였다. 여기에 2개 과와 42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었다(金 등, 1974).

협회가 구성된 뒤 잠시 연속적이지 못했던 조사사업이 1971년도에 울릉도와 소금강 및 오대산 조사(金과 金, 1971a,b)를 필두로 2012년 현재까지 생물상 파악을 위한 약 80 지역의 종합학술조사와 40여 회의 개별적 생물상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다양한 지역 연구, 특정지역의 곤충상 변화 등의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곤충학

분야에서 이런 조사나 연구 사업에 참여한 학자 수는 약 80명 가량이며, 필자가 특별히 많게도 40회 가량을 참여했다.

이에 따라 본인에 의한 신 분류군 발견 수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가령 무주구천동 조사(金과 金, 1972)에서는 1과와 47 미기록종을 보고하였고, 40년간의 종합으로는 딱정벌레목 9과, 파리목 8과, 노린재목 1과 등의 18개 과와 11목의 271종을 우리 협회의 발간물에서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딱정벌레목 신종 9종과 신아종 2종의 표본도 협회 사업을 통해 얻어진 것들이나, 이들은 기준을 충족시킨 학회지에 기재가 필요해서 협회 발간물에는 실을 수가 없었다.

다른 학자들에 의해 발견 및 보고된 신 분류군 역시 적지 않다. 예를 들어 申과 具(1974)는 나비목 곤충을 내장산 5종, 고군산군도(申과 朴, 1980) 9종을 보고하였고, 金과 南(1977, 1984)은 임계 총 12종, 설악산 잠자리 2종, 尹과 南(1978)은 거제도 총 6종, 朴 등(1992, 1994)은 지리산 총 43종과 금오도 총 4종, 李 등(1995)은 벌목 8종 등을 포함한 총 약 200종이 신기록 종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의 어느 연구, 기관도 육상곤충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즉 500에 육박하는 종을 새로 한국산으로 추가한 일이 없는 만큼 우리 협회의 공로가 참으로 지대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김(1997, 2010)을 참고하기 바란다.

화려한 업적에는 문제점도 뒤따랐다

지난 50년 동안 연구 사업은 대개가 전문가에 의한 전문분야 연구였기에, 과정이나 결과물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별 종합학술조사는 분류군 별로 성실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종의 구성이 소수인 분류군에서는 동시에 많은 전문가가 동원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

만 곤충의 경우는 종수의 막대함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서식처나 생활사의 다양성도 엄청나게 큰 만큼 세부 분류군별 또는 서식처별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분야만을 담당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의 20~30년간, 또한 근래까지도 간혹 한명의 학자가 곤충 중 전체를 조사해왔다. 이는 조사 결과에 엄청난 오류가 포함되었을 것임을 천명한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곤충 종류별 조사를 실시하거나, 팀 수를 늘려보기도 했으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게다가 조사 자체가 성실하지도, 계절이 고려되지도 못했다.

불성실성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경비 문제에 있었고, 이것 자체가 해마다 크게 감소해온 것에 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 받은 2억 원 시대는 화폐의 가치뿐만 아니라, 높은 은행금리에 따른 이자 수입도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았다. 지금은 이자 수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보조금마저도 핑계거리만 생기면 금액을 축소시켜 왔으니, 우리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런 일의 연속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회원들의 참여율도 점점 떨어지면서 극히 저렴한 회비마저 내주지 않으니, 이제는 협회의 운명을 걱정해야 할 시대에 들어선 것 같다.

과거에는, 즉 그렇게 풍족했던 시대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훌륭한, 아니 믿을만한 업적을 만들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당시는 나라 전체의 곤충학자, 특히 분류학자 수도 적었고, 이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은 더욱 적었다. 1960년대 초는 이병훈(전 북대 명예교수) 외에 1명이 있었으나, 이병훈은 생리학 분야로 진학했었고, 후자는 연구 활동을 계속하지 못했다.

60년대 말에 DMZ 조사를 같이 했던 오진국 씨가 곤충분류 분야로 진학은 했으나 도

중하차하였고, 우건석(서울대 명예교수)은 층채벌레 분류의 전문가였으나 화훼해충이나 화분매개 곤충에 초점을 두었던 터라, 우리 협회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겨우 필자가 분류학으로 석사과정에, 생리학 전공이던 이병훈이 특토기 분류로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어찌면 이 두 사람만 끝까지 연구생활을 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병훈은 미세곤충을 다루었고, 이외의 약간의 위생곤충학자들도 협회와 크게 인연을 맺을 수가 없었다. 1980, 1990년대는 정부가 생물학분야에 투자는 했으나, 고위직 인사들의 사고방식이 유전공학-생명공학(사실상 전에 농학계열에서 육종학이라던 용어와 별로 다르지 않은)에 빠져서 우리와 같은 超 기초분야는 서리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무렵, 필자는 환경처(-청, -부)가 실시하는 곤충상 조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분류 전문가 크게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컛등으로만 듣는 공무원, 필요성을 이해는 했으나, 즉시 타부서로 발령을 받아 곧 잊어버리는 공무원들과 잡담에 불과한 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의 민도도 매우 상승했고, 환경부도 생물상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가 절실함을 깨달아 이 분야에도 크게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방법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어찌서 분류 전문가인 자신들이 직접, 게다가 융통성 없는 행정공무원의 형태로 운영한단 말이던가! 그들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사이에 가교를 놓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기 분류군의 분류전문가들인데, 왜 이들을, 즉 연구책임자를 행정교수로 만들어 인력에 손해를 보고 있는가? 더욱이 우리 협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존재를 뻔히 알면서도 연구

를 위해 채용한 전문가들을 왜 행정공무원으로 바꿔버렸는가? 참으로 답답한 우리 정부의 행정이요, 답답한 사고방식이로다!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분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리셔서 생물상을 포함한 생물학의 기초, 아니 폭 넓게 자연환경과 관련된 기초 조사는 우리 협회와 같은 전문인 집단에게 넘겨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일부의 다른 분과 생물학자조차 육종학보다는 기초과학 육성이 더 절실함을 느끼고 있으며, 학부모도 기초학문은 무조건 배고프다는 인식에서 많이 벗어나 자식들이 이 분야로 유도하기를 꺼리지 않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네의 현재 업무를 제발 적절한 전문가 집단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의 기반이 구축된 다음에나 노벨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협회도 이제는 과거의 사고와 조사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날은 우리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학자의 반열에 섰던 사람들조차 우리의 환경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 자연, 특히 이 땅의 생물을 파악하는 일은 당연하면서도 시급했었다. 따라서 과거의 우리 협회의 사업들은 매우 잘 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양적인 만족뿐 질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가 없겠다. 이제라도 미래는 그 시대에 걸맞은 만족을 가져올 방법을 모색해 보고, 모색한 결과에 맞추어진 조사나 연구 방법으로 바뀌어야 하겠다. 특히 곤충상 조사는 특정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배제시킴이 마땅하다. 근래는 다른 기구, 예로 국립 박물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지역 생물상을 성실하게 조사하고 있으니 우리는 설 자리를 빼앗긴 셈이지만, 저들과의 경쟁으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행되었던 연구 역시 모두

검토해 보고 앞으로 이 땅에 적절치 않거나, 가치가 없는 형태의 연구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어쩌면 태국적부터 우리 땅은 인간에 의해 극심하게 파괴되어왔다.

이렇게 인류가 만들어낸 잘못된 환경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그 원인 제거에 주력하든가, 아니면 과거 환경으로의 복귀에 전력할 때가 왔다. 사실상 이런 일들은 우리 협회의 능력 밖의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규모의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 환경을 분석하든가, 환경지표생물이나 우리 환경을 구성했던 주요 생물을 복원하는 방안 등은 미력하나마 또는 부분적일지라도 협회가 담당해 볼 만한 일일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연의 보전관리, 한반도의 고유생물이나 자생생물의 발굴과 관리, 산불이나 홍수로 피해를 입은 환경의 조사와 대책 마련 등은 협회가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을 수행하자면 연구비의 충당이 절실한데, 지금 당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준비가 미흡한 현실에서는 사업 규모가 작은 주제를 먼저 선정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대다수의 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다. 다수의 배제를 원치 않는다면 다른 기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야 한다. 요즘 환경부의 경우만 보더라도 무척 다양한 주제에 막대한 연구비를 쓰고 있다. 이중 일부만 할애해 와도 우리 협회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여러 기업체로부터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문제는 지원요청에 회원 각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 모두가 합심하여 협회의 장래를 키워 나갑시다. 그동안 우리 협회가 크게 간과해온 점 또 하나가 있다. 무릇 자연환경이란 생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닌데, 협회는 너무나도 생물인에게만 의존해 온 점을 반성해

야 하겠다. 자연환경은 태양계 중 지구라고 불리는 별에서 형성된 것인즉, 우주환경에게까지 관심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구 자체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었어야 한다. 물론 그동안 지질학적 연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적극성은 아주 빈약했다고 본다. 또한 이 별의 환경은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크게 손상을 입어왔다. 그러니 인류학 및 인류의 진화분야도 우리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이며, 인간은 사회성 동물인 만큼 사회학자들의 개입도 필요하다. 인간은 이제 자연식(自然食) 동물이 아니라, 농축산물을 먹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만큼 농축산 종사자도 참여해야 하며, 농축산은 경제이므로 경제학자의 개입도 필요하다. 또한 인간이 모이면 對 인간, 對 자연을 향해 오류를 범하게 마련이다. 이를 규제할 법적 문제도 관여되어야 한다. 훼손된 환경의 복원에는 공학자들의 협력이 크게 필요할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우리 협회는 자연인=생물인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전 학문분야와 공생할 줄 아는 기구가 되어야 하겠다.

채집활동에서 얻은 손익의 문제

나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던 채집 후기나 에피소드의 대강은 「자연보존」 149호(김, 2010)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그것들 말고도 몇 가지 사소한 사건들을 추가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것은 독자에게 흥밋거리는 아닐 수도 있다. 한편, 이미 쓰인 내용은 비록 내 것일망정 표절에 해당할 수도 있기에 또다시 쓰기는 피하고 싶으나, 거기에 실었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만 하기로 한다.

먼저 내가 아주 어렸던 울릉도(1971a)와 해남 대둔산(1972b)의 조사 때, 멀쩡한 길에서 길을 잃어 점심도 못 먹고 고생했던 이야기를 했다. 울릉도에서는 일반 등산로를

잃어버렸지만 산 밑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올 만큼 가까운 봉오리였다. 사전에 인위적으로 도입된 개구리 외에는 자생 육상 척추동물이 없는 섬인 줄 뻔히 알고 갔으면 서도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고양이를 만나자 맹수라도 만난 듯 겁을 먹었던 이야기였다. 대둔산에서는 평면 지형도를 대충 훑어보고, 정오쯤 어느 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해지기 훨씬 전에 조사단 본부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굵은 길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시골길은 수평이 아니라 오르내림이름을 고려치 않았다가 귀가시간에 차질이 생겼다. 거의 저녁 무렵 점심 먹으려던 마을에 도착해 늦어짐을 본부에 알리려 했으나, 마을에 단 한 대뿐인 전화의 집주인이 출타해서 연락도 못하고, 대중교통수단은 커녕 일반 차량조차 없어서 빨리 귀가치 못했다. 조사단 본부에서는 산중에서 낙상사고라도 일어난 줄 알았고, 해남경찰서를 발각 뒤집어 놓았던 실수 이야기였다.

봄에 막 해동하여 엄청난 살무사 떼가 어느 들판으로 쏟아져 나왔기에 포충망에다 몇 마리를 쫓아 담았다. 야외실습차 데려갔던 학생들에게 뱀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다 뱀이빨에 손가락이 찢렸던 일. 마침 채집냥에 있던 고무줄로 손가락을 뽕뽕 감고 종일 채집을 마친 후 서울로 돌아와서는 대폿집에 들러 한 잔. 갑자기 어지럼증이 일어 뱀독이 퍼진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메스로 손가락을 도림질 당하다가 뱀독이 아니라 대폿집 연탄가스 때문임이 생각났던 실수 이야기. 1984년도 장마가 끝날 무렵 전남 거문도로 조사를 갔었는데, 사흘 동안 비가 와서 활동이 부진했는데 그날은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해가 났다. 숲에서 갈아엎은 텃밭을 만났는데 작물이 없어서 그냥 건너가려 했다. 채집 중에는 흔히 아무렇게나 밭을 내던게 마련인데, 이날 따라 밭밑을 내려다 보았다. 흙

덩이 위에 살무사가 일광욕 중이다. 발길을 돌리려고 다른 곳을 보았더니 몇 십 센티 간격의 모든 흙덩이에 모조리 한 마리씩, 할 수 없이 되돌아갔던 기억도 있다.

1993년도의 여천군 금오열도(金鰲列島) 종합조사(金, 1994) 때는 조사단을 실은 군청 배가 전복되어 여러 사람이 바다로 튕겨 나갔다. 갑작스런 아비규환을 잘못 설명했다는 특정인을 거명할 염려가 있으니 상세한 설명은 보류하기로 하고, 마침 근처를 지나던 배가 있어서 즉시 구조는 되었다. 대충 사고가 수습되고 시내로 들어오자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다. 조사 자체가 중단되었다.

나마저 튕겨 나가지는 않았으나, 이제 내 인생은 이 채집으로 마감하는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었다. 무심코 밑을 내려다보니 포충망이 배 옆에 둥둥 떠 있다. 다리를 뻗어 발목으로 걸어 올려 얼마간 더 쓰다가 낡아서 처박아두고 잊어버렸었다. 퇴직 후 대학에서 학과의 생태탐방이 있으니 지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현장에서 어느 학생이 그 포충망을 휘두른다. 옛 전복사고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망은 압수,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다. 무엇에 쓰겠다고 보관하는지?, 이 무슨 욕심인지? 아무튼 종합조사마다 즐기치게 따라다니던 장마로 곤혹.

海岸砂丘性 곤충 조사 때는(협회의 1982년도 개인 연구) 잡히는 족족 신종, 미기록종, 심지어는 미기록과로 즐거운 비명. 그러나 여자 조교들과의 동행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서 혼자 다니기로 했다. 남해안 전체를 4박 5일 계획으로 출발했는데, 한 장소의 조사를 마치고 동네로 돌아오자 다음 지역행 버스가 대기 중, 당연히 승차하여 이동하다보니 1박 2일 만에 귀가했다. 말하자면 무리수를 두었다는 이야기. 어느 산에서는 혼자 한참 구부렸다 급하게 일어

나니 하늘이 노랗고 쓰러질듯 현기증이 있다. 구부려서 호흡 정지 상태였었고, 다행히 되살아나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다. 완도군의 신지도(薪智島)는 매월 정기 조사지역으로 정했었는데, 당시는 서울에서 아침에 출발해도 당일엔 신지도까지 갈 수가 없었다. 완도에서 일박한 다음날 뱃시간 30분전에 매표소로 갔더니 표 파는 사람의 부인이 매표하는데 너무 빨리 왔다고 신경질이다. 마침 위층이 다방인지라 커피를 한 잔하고 10분 전에 내려왔더니 배가 이미 떠나 저만큼 가고 있다.

실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정박 중인 배를 물어보니 청산도(靑山島)행이란다. 당일 되돌아오는가 물었더니 그렇다고 해서 탔는데, 웬걸! 그날 들어갔다가 다음날 나오는 낙도. 청산도에서는 중대한 이야기거리가 또 있다. 섬에 도착하니 항구에서 기다리던 경찰이 간첩으로 몰아세운다. 소지품을 검사해보아도 모래를 체질할 체와 빈병 몇 개뿐, 슬그머니 판청을 피우는 친구를 벗어나 바닷가로 나가봤더니 사구는 커녕 모래발도 없다. 별건 대낮에 동네를 돌아와 둘러보니 여인숙 하나가 있다. 식사 제공은 안 한단다. 책 한 권, 다른 어느 것도 없는 빈손이 작렬하며, 서쪽을 향한 햇볕만 바라볼 뿐 대책이 없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퍼뜩, 여인숙 건너편 어느 집에 맥주병이 진열된 것을 보았던 생각이 났다. 당연히 가게를 찾아가니 30대초로 보이는 여인이 나온다. 맥주 한 병을 주문했더니 먹고 가지 왜 가져가느냐. 요점은 거기는 식당 겸 주점이라는 이야기. 이게 웬 떡이냐? 시간도 좀 보낼 수 있지 않은가? 자리 잡고 한 잔 따르고 그녀에게도 주려했더니 비슷한 여인 두 명이 더 나타난다. 별 수 없이 추가 주문하여 합석했다. 하지만 곧바로 한 여인이 잔을 비우기도 전에 배가 아프니 약값으로 천원만 달

란다.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그냥 주었다. 두어 잔 마시다보니 약 산다는 여인도, 다른 여인도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처음의 여자뿐이다. 참으로 순진했던 나는 두 여인의 행방을 물었더니, 천원은 그 동내서 술집 팀으로 받아가는 수단이란단다. 나는 이런 경우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며 벌컥 화를 낼 수밖에. 하지만 참고 이유를 물었더니 참으로 불쌍한 여인들이었다. 섬에 들어오면서 집주인에게 빚진 한복 한 벌 값을 갚아야 떠날 수 있단다. 여인숙으로 그 많은 사건들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으니 돌아오며 그들의 빛을 갚아주고 데려올 생각도 했었지만 데려오면 어떻게 처리하나? 다음날 그녀들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살금살금 섬을 빠져나왔고, 그들의 사정은 7년 후인 1989년도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이해 봄, 서해안의 멩텅구리 새우 잡이 배에 납치되어 노동을 착취 당하다 겨우 탈출한 어느 고등학교 교사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다방이나 술집 종사 여인들이 납치되어 섬으로 팔려가고, 지리를 몰라 도망칠 수 없게 한두 달마다 다른 섬으로 팔려 다닌다는 사실을 이제야 안 것이다.

만일 그때의 그 여인들을 빼내려 했다면 나는 누구도 모르는 채 남해의 물귀신이 되었겠지. 동해안은 사구마다 방첩용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육십껏 채집하자면 국방부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아야 할 텐데, 아마도 요즈음 같으면 허가를 받았겠지만, 당시는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러니 보초병 뒤쪽에서 몰래 조금씩 활동할 수밖에. 그 많은 사건들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으니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자. 아무튼 이 김진일은 우리 협회 사업에 적극 참여해왔고, 그 덕분에 여학교에서 근무했으면 서도 많은 업적을 낼 수 있었기에 협회에게 크게 감사한다.

참고문헌

- 金鎮一, 1994. 金鰲列島의 夏季昆蟲相: 딱정벌레目 및 파리目. Rep. KACN. 32: 211-217.
- 김진일, 1997. 한국자연보존협회의 학술조사 및 연구사업 - 곤충류. 자연보전 100: 80-87.
- 김진일, 2010. 한국 곤충의 분류학사와 한국자연환경보존협회. 자연보전 149: 19-35.
- 金昌煥, 金鎮一, 1971a. 鬱陵島의 夏季昆蟲相. Rep. KACN. 3: 47-62.
- 金昌煥, 金鎮一, 1971b. 小金剛 및 五臺山의 昆蟲相. Rep. KACN. 4: 139-174.
- 金昌煥, 金鎮一, 1972a. 茂朱九千洞의 昆蟲相. Rep. KACN. 5: 65-101.
- 金昌煥, 金鎮一, 1972b. 海南 大屯山의 昆蟲相. Rep. KACN. 6: 189-200.
- 金昌煥, 金鎮一, 吳鎮國, 盧鏞泰, 申裕恒, 1974. 非武裝地帶 隣接地域의 昆蟲相. Rep. KACN. 7: 182-257.
- 金昌煥, 南相豪, 1977. 臨溪面 一帶의 夏季昆蟲相. Rep. KACN. 13: 125-142.
- 金昌煥, 南相豪, 1984. 雪嶽山 昆蟲의 分布와 林相과의 關係. 雪嶽山學術調報, 自保: 303-350.
- 朴重錫, 1994. 金鰲列島의 夏季昆蟲相. Rep. KACN. 32: 219-232.
- 朴重錫, 具德書, 韓璟惠. 1992. 智異山 咸陽郡地域 및 뱀사골 一帶의 昆蟲相. Rep. KACN. 31: 153-218.
- 申裕恒, 具太會. 1974. 內藏山 一帶의 昆蟲相(나비목). Rep. KACN. 8: 127-148.
- 申裕恒, 朴圭澤. 1980. 古群山群島 및 飛雁島 夏季 昆蟲相에 關하여. Rep. KACN. 18: 127-142.
- 尹一炳, 南相豪, 1978. 巨濟島 隣近 島嶼의 夏季 昆蟲相. Rep. KACN. 14: 75-92.
- 李鍾郁, 柳聖萬, 車晉烈, 徐璟仁. 1995. 小白山國立公園 一帶의 벌目 昆蟲相. Rep. KACN. 33: 181-208.
- 한국자연보존협회. 2003. 自然保存40年史. 自保: 17-47.
- 한국자연환경보존협회. 2013. 自然보전 50년사. 自保: 249-318.